

# 중국, 원유유출 유전 가동 재개

## Bohai만 Fenglai 유전 검증 완료 ... Cononco 발전계획도 승인

심각한 원유 유출사고를 일으켰던 중국 Bohai(渤海)만 Fenglai(蓬萊) 19-3 유전이 가동을 재개하게 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.

중국 국가해양국은 2월16일 Fenglai 19-3 유전이 가동 재개에 필요한 모든 검증절차를 마치고 사전조건도 모두 충족했다고 발표했다.

해양국은 유전 운영기업인 ConocoPhillips가 제출한 유전 발전계획도 승인했으며, 유전 가동은 조만간 재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2011년 7월 원유 유출사고를 낸 Fenglai 19-3 유전은 가동을 정지한 채 추가 유출 차단, 유전 복구, 환경 개선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.

원유 유출로 6200km<sup>2</sup>의 해안이 오염됐으며 해변의 양식장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 바 있으며, 중국정부는 ConocoPhillips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 총 16억8000만위안의 기금을 조성해 해양환경 개선과 어민 배상에 사용하도록 했다.

해양국은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유전 운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2/18>